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 경기불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김성주, 김서영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neo21.org • E-mail : budsos@empal.com

## 백신에게 듣는다(다섯번째)

### 성타(性舵)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종교와 현실”
- 일시 : 불기2547(2003)년 7월 19일(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



#### 성타스님 약력

- ▶ 통도사 강원에서 대교과 졸업 ▶ 제6,7,8,10,11대 중앙종회의원
- ▶ 사단법인자연보전환경협회장 ▶ 조계종포교원장 ▶ 학교법인중앙승가학원이사(현)
- ▶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 대구불교방송사장(현)
- ▶ 재단법인 불교방송이사(현) ▶ 조계종 환경위원장(현) ▶ 불국사 회주(현)
- ▶ 자랑스런나라만들기운동 공동대표 ▶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창간초



창간사

## 경기불교 소식지를 창간하며



경기불교문화원 이사장 김 태 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남문에 소재한 경기불교문화원은 약100여평의 공간에서 재가 불자 및 일반시민들의 문화공간을 목적으로 작년 4월 중순 개원식을 하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모여 사람이 어울려 사는 사회를 이룹니다. 또 하나의 사회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은 것이 모이고, 많은 것의 모임을 허용할 때, 그 안에서 사람의 삶이 풍요한 것으로 살찌는 터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장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개발하고 그것을 인간의 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혜의 발전에 달려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발전을 모든 사람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것이 되게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공존질서의 수립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존의 문제의 기술적, 사회적 해결만으로 참다운 인간적인 행복과 자기 실현은 완성되지 아니하고, 사람은 그의 삶이 그때그때 그의 일생을 통하여 또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종족적인 지속을 통하여 끊임없이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이 구현을 통해서 사람의 삶은 비로소 어느 정도의 완성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른 사정에 끌려가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도 사람이 스스로를 창조하겠다는 생각은 적어도 인간의 역사적 투쟁의 이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실천에서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도 의식속에서 그러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 의식은 개인의 의식일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사회 공동체 의식 또는 공동체의 초개인적 주체성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물질적, 사회적 도구의 체제로 존재하듯이 모든 의식도 역사속에서의 인식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하듯 부처님의 가피로 건립된 우리 문화공간인 경기불교문화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리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경기불교」 창간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축 「경기불교」 창간**  
“불자의 집을 이용합시다.”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통권 2-3>  
수미산



# 연기실에서 본 환경과 마음 「경기불교」창간을 축하하며

보현진열 스님 / 감로향사

여름이 오면 무더운 계절이라 저절로 땀을 흘리게 되고, 그만큼 우리들은 활동을 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장마가 지속되면 홍수나 산사태 등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 즉 환경의 여건은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양태를 상당히 규정하고 만다.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환경결정론에 서게 된다. 주위 여건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환경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결정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인간사 모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전제 하나까 저 환경적 요소나 현상마저도 마음에서 유출된 것으로 불교의 유식학은 보고 있다. 유식이 불교의 바탕을 이루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교의 입장은 언제나 중도를 가르친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반드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행동과 사상을 요구한다. 이것은 쉬우면서 매우 어렵기도 한다. 중도적 입장이란 것이 말은 쉬워도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첨예한 정치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교에서는 환경이 인간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에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와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에서 항상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한다. 그래도 중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 둔다. 대략 환경과 마음의 비율이 30:70 정도 될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마냥 100% 마음의 소치로 여기는 것이 이른바 유심설이지만....

사실 옛날에는 환경과 마음의 상태를 구분하지 않았다. 환경이란 걸 생각지 못하고 모든 걸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의 현상으로 보았다.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밖에 사물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믿었다. 특히 선정에서는 눈 앞에 모습이 나누는 현전삼매를 통해, 그러한 생각을 확실하게 굳혀 갔었다. 모든 경설은 입정한 상태를 거쳐 출정한 후에 대중에게 설해졌기에, 불교는 마음의 현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거 초기불교부터 석존의 직설로 알려진 연기설의 취지에서 보면, 원인 보다 여건을 중요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마음 밖의 요소가 결국 마음까지 규정하고 만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환경적 요소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환경 보호 문제나 노사 문제 등 여러 사회

적 갈등 요소들이 사실은 환경결정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을 흔히 구조적 문제라고 한다. 정치적 제도적으로 그렇게 짜놓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며 투쟁운동이 분연히 일어나곤 한다.

연기설에 의하면, 그러나 그런 갈등이나 투쟁하는 명분과 행동 안에는 언제나 탐진치의 삼독이 깔려 있어서 그렇다고 설파한다. 어느 쪽이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어느 쪽이든 간에 서로간에 그렇게 하는 관계에서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삼독을 바탕으로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이다. 불타는 것들이 있으니 재료 삼아 타는 것이다. 그 재료가 없으면 그만 탈 것이다. 그 재료들이란 바로 삼독이기 때문에 삼독이 사라질 때 인간의 그런 투쟁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중생이 있는 한 중생이 있는 곳에는 어차피 삼독이 있기 마련이요 그래서 항상 중생계는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다. 요즘 세계화에 맞추어 이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진 우리는 환경적 압력에 매몰되어 오늘도 죽어가고 있을 뿐이다. 전자산업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개인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탈당하고 있다. 이를 가속화하므로써 민주를 가장한 독재 정권이나 권력이 집단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등장하고 말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쥔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들끓는 삼독심을 가득 채우려는 행동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기설은 바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모든 것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상호 관계를 이루므로 서로 비슷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 뿌리인 삼독심을 승화하도록 권장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있는 자들의 극한 투쟁은 자신들은 옳고 상대는 마냥 그르다는 아집과 독단을 달리는 사회적 폐해다. 앞으로 더욱 그 뿌린 씨앗들은 또 열매를 맺어 사회 곳곳에서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는 확대 재생산될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힘든 인생이라고 푸념할 것이다. 그런 악연의 인과를 쌓기 전에 좋은 인연의 끈을 맺을 수는 없을까? 연기설은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고 양보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접점을 찾는 태도와 진지함이 곧 연기적 중도이며 삶의 미덕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무 관세음보살]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중고차·신차 매매상담

**21세기 자동차 상사**

대표 **박 노 훈**

영통자동차 매매단지 207호 H.P 011-9912-4271



축사

# 「경기불교」 창간을 축하합니다



경기도지사 손 학 규



경기도의회 의장 홍 영 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온누리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정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불교문화원에서 「경기불교」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1천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奉祝드립니다.

우리 불교는 수천년을 민족과 命運을 같이한 護國 불교로서 겨레의 시련이 있을 때마다 奮然히 일어나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 왔고, 시대를 넘어 민족의 큰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불교」의 창간은 진리와 자비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우리 중생과 사회에 불교를 커다란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국내·외적 여건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각한 사회적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과 사회불안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제활성화대책 등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佛子여러분을 비롯한 1천만 도민 모두가 협력해 주셔야만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기도와 국가의 발전·번영이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배우는 삶, 나눔의 생활화, 생명공동체 실현”의 뜻을 펼쳐나가는 [경기불교문화원]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큼니다.

또한, 「경기불교」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일깨우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광명의 등불로 밝게 빛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불교」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진철희 원장님을 비롯한 불자여러분께 부처님의 加護와 加被의 묘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기 불교

존경하는 경기 불자 여러분!

「경기불교」창간을 경기불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생겨날 때부터, 사회가 형성될 때부터 이어져 왔으며 인간이 살아가고 사회가 유지·변화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종교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진리를 통하여 인간의 심성을 맑고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깨우쳐 주어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불교가 표방하고 있는 “배우는 삶, 나눔의 생활화, 생명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실천하여 맑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기불교」창간호 발행을 위하여 애쓰신 김태제 이사님과 진철희 경기불교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건전한 불교문화의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불교



가족은 부처님!

조계종 포교사/ 불교미술의이해 강사

권 중 서

H.P 011-9729-1401

# 「경기불교」 창간을 축하합니다



수원불교연합회장  
조 성 관



수원시장  
김 용 서



수원시의회의장  
김 종 열

지리한 장마 중에 피어난 무지개는 더욱 신선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미당이 국화를 보고 노래했듯이 무더위와 폭우후에 찾아오는 무지개는 설령 큰 크리이트 담 위에 걸린다 해도 분명 진한 감동을 주는 그 무엇입니다. 반면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증오와 폭력은 우리에게 희망을 앗아간지 오래돼 보입니다.

무분별한 자연파괴로 인한 환경훼손은 무서운 재앙으로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존망을 표시하는 운명의날 시계는 그 종점에 불과 수분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수경스님등 종교인들의 삼보일배 수행은 사람과 지구에 생명을 피우는 평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불교문화원 불자들이 소식지인 「경기불교」를 발간하는 것도 우리 이웃에 기쁨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과거의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타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들의 모든 실천은 결국 어두운 세상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피워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글은 언설 이전의 것을 지향할 때 빛납니다.

「경기불교」의 글들이 백천간두진일보의 면목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경기불교' 발간을 하며 세운 지혜와 평화의 굳은 서원이 우리 지역을 밝히는 법의 등불로 빛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기 불교

## 대원 공인중개사

대표 윤 영 무

TEL. 031)293-9700 H,P 016-755-4189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올바른 시민의식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노력하시는 불교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배우는 삶, 나눔의 생활화, 생명공동체 실현」이라는 3대 목표아래 경기 불교문화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발간되는 「경기불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 불교문화원은 불교 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참여 활동에도 적극적인 불자들의 모임으로서, 불교신앙의 과제를 시민들의 삶과 접목하여 실천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매우 의미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성숙한 도시 분위기는 주체적이고 독창성 있는 우리의 문화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출판물의 발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문화원의 「불교문화」소식지 발간사업은 전 불교인은 물론 수원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다양한 문화소양 함양을 위하여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지면과 상세하고 섬세한 설명으로 불교 문화를 기록·고증함으로써 안개와 구름을 뚫고 비치는 한줄기 서광처럼 여러 불교인의 빛이 되어주시기 바라며,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 소식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불교

## 불자들의 애경사에 제일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교육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강사 권혁찬

연락처 : 이화순 (011-9709-9081)

푸르름이 깊어진 신록의 계절 경기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불자들의 목소리 「경기불교」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위해 애쓰신 경기불교문화원의 김태제 이사님과 진철희 원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경기불교문화원 불자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정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계 각층의 이기주의 팽배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신뢰의 붕괴로 인한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인간의 양심마저 외면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경기불교」의 창간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붓끝을 통해 이어지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무너져 가는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계기로 배우는 삶, 나눔의 생활화, 생명공동체실현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정착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불자들의 메아리 「경기불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불교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가정에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불교

## “찬불가는 항상 즐겁습니다.”

매주화요일 오후 2시

반주 : 진 희 연



# “사바세계가 극락세계”

“높은 산새 우는 깊은 골짜기  
외로운 토굴에 사는 나그네  
부지런히 밭한떼기 농사 짓더니  
자갈밭 이랑에 핀 연꽃 한송이”  
“이뭐꼬? 한 생각 열심히 닦고 닦아  
올곧게 정진하여 무심을 이루었네  
동산에 뜬 밝은 달은 천강을 비추고  
마음에 뜬 샛별은 은하를 건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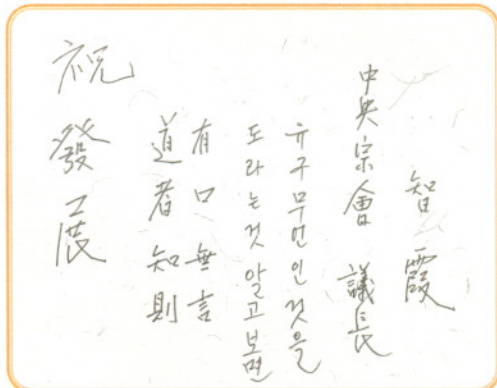
**우** 리 불교는 경전이 어렵다고 하지만 글자공부를 하면 논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으나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수행방법은 어렵지가 않다. 성취하기까지는 그 업에 따라서 선업을 짓느냐, 악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맺어지는데 도를 얻는데 좋은 인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누어지던정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에 따라서 축각에 이를 수도 있으며, 100일기도, 1000일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에 처음 들어와서 시신마 화두(이뭐꼬)로 한 생각 닦고 닦아서가 대표적인 화두이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염불도 똑같이 시심마 시심마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도 같이 보십니다. 염불선으로 관세음보살 하다보면 무심까지 가는데 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중생이 부처란 것 경전에도 내마음이 부처라고 화엄경에도 있다. 심불중심 차별없이 똑같다.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부처고 중생이 부처다. 마음 중생 부처가 차별없이 똑같다. 그것이 화엄경이다.

자신이 부처라고 믿으면 부처가 된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내마음이 부처 중생이 부처란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꿈꾸고 현실을 보고 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부모님, 형제, 동생 자식 이웃을 부처로 보느냐 이웃을 부처로 보느냐 부처로 보고 미워하는 사람을 부처로 보고 모든이를 부처로 보면 극락세계가 될 수있나? 마지막 단계로 실제로 꿈꾸고 보고 사는 것이 경전에 수없이 있다. 심불중심 무차별 마음이 부처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라 간직 하고만 있다. 무심의 근본적인 공부

를 이루어 얻는 것이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단계를 알고 부처님을 보고 살아도 그것이 논리가 다른 것은 번뇌가 무심이다.

번뇌 번뇌 하면은 번뇌가 제거되지 않는다. 그 무엇이 무심이나 무상하게 변하는 마음 줄끓들 하는 번뇌 이 모든 것이 일체가 무심 이것이 이론이다. 답은 있다. 그러나 찾는 것은 아니다. 봄을 찾아 삼천리 방방곡곡을 찾아도 안된다. 집에 와서 보니 개화하는 것을 보면서 봄을 찾는 것이다. 자성자오(自性自悟)면 돈오돈수(頓悟頓修)라, 본래 내 성품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버렸다는 말입니다. 나라고 생각할 때 이 몸뚱이가 참 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돈오돈수라고 말씀하시며 조용히 합장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 지하스님 약력** : • 중앙승가대학총장 불교방송이사(현)  
•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장(현)

“본 원고는 경기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한 「백인에게 듣는 다 네 번째」지하 큰스님 초청법회에서 법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

「경기불교」창간을 축하합니다.

불교의식반 회원 일동

강사 : 권혁찬

「경기불교」창간을 축하합니다.

요가반 회원 일동

강사 : 김상용

## 경기불교 소식

### ● 문화원소식

경기불교문화원(원장/ 진철희)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사찰환경 답사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1회는 경남 고창 옥천사, 문사암, 백천사를 제2회는 안동 봉정사와 하회마을, 제3회는 안성 석남사에서 수련대회, 제4회는 전북 청원사와 금산사를 답사하였다.

문수암▶



▲봉정사



▲석남사

### ● 기초교리, 불교의식, 다도반 수료식 거행

제1회 기초교리, 불교의식, 다도반의 수료식이 진철희 문화원장, 윤영애 다도강사, 권혁찬 불교의식 강사, 이기원 이사등을 모시고 3개월 과정을 마치고 6월 30일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 다도강좌 수료자 : 김준옥, 김금희, 김정미, 영혜심, 김영미
- 기초교리 및 불교의식 수료자 : 김준옥, 김순자, 이화순, 윤광숙



기초교리 의식반▶



◀다도반

## 8월 행사 안내

### ■ 백인에게 듣는다(여섯번째)

은산 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한국불교의 현실과 불교인의 역할"
- 일시 : 불기 2547(2003) 8. 23(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
- 약력 :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 ■ 우란분재일, 천도재 법회 안내

선망부모 및 태안영가등에게 왕생극락을 바라는 불자들의 소망을 담은 우란분재일 천도재, 법회를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시 : 불기2547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 5시 30분까지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
- 참가자 : 대한불교조계종 범패포교단원(이동원 단장외)

### ■ 사찰환경 답사 안내

8월중 사찰환경답사는 백제고찰이며 자연생태 사찰로 토종야생화와 수생식물의 자연학습체험과 티벳박물관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장소 : 전남 보성 대원사, 선암사
  - 일시 : 2547년(2003년) 8월 9~10일(1박2일)
  - 출발장소 : 수원포교당입구 매향다리
  - 출발일시 : 8월 9일(토) 오후 1시
  - 동참금 : 45,000원(여행자보험, 간식, 1박3식 제공)
- ※선착순으로 접수후 좌석 배정합니다.  
문의 251-1083 김성주 간사



「경기불교」창간을 축하합니다.  
다도반 회원 일동  
강사 : 윤영애

「경기불교」 창간을 축하합니다.  
경략반 회원 일동  
강사 : 고철성

# 경기불교문화원 강좌안내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불 교 강 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4주 20,000원	불교의식(집전)	월	오후 2시
							오후 7시
	노래교실	반주자 진희연	20명	4주 20,000원	찬불가 및 노래부르기		화요일 오후 2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40명	4주 20,000원	불교기초교리	수	오후 2시
							오후 7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4주 20,000원	불상, 석탑, 탕화, 범종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교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9/5 개강 예정 수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묘주스님	3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문 화 강 좌	요가반	김상용	20명	4주 30,000원	생활요가(주2회)	월 목	오후 7시
							오후 7시
	다도반	윤영예	20명	4주 20,000원	다경, 생활차예절법		화요일 오전 10시
	태극권반	남윤현	20명	4주 20,000원	태극권, 기초품세		화요일 오후 7시
	중국어회화	이영옥	20명	4주 2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목요일 오후 2시
	영어회화	김수희	20명	4주 20,000원	생활영어 회화		금요일 오전 10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4주 2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금요일 오후 7시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강사	40명	30,000원	사찰 환경답사		매월 1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청소년 문화 쉼터반	홍혜련	20명	4주 20,000원	중국어 회화		토요일 오후 2시
최보람		20명	4주 20,000원	영어 회화		토요일 오후 2시	
홍낙기		선착순50명	무료	영화 관람		토요일 오후 4시	

## ■ 회원가입안내

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각종 강좌를 50%할인(불교문화대학, 불교미술의 이해, 사찰환경 답사반 제외)하여 드리고 문화원 자체 강좌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에 쓰여지며 회원에게는 1년등을 무료로 밝혀드립니다.

※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일반회원 : 월 1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회원
- 후원 및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 ■ 여름방학특강안내

회원에 한합니다.

다  
도

- 대 상 : 초.중등학생 / 선생님
- 강좌일시 : (초.중등학생) 1차 - 8. 4 ~ 9 / 2차 - 8. 11 ~ 15  
(선생님) 1차 - 8. 18 ~ 22 / 2차 - 8. 25 ~ 29
- 시 간 :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 수강료 : 초.중등학생 - 10,000원 / 선생님 - 20,000원

영  
어  
중  
국  
어  
강  
좌

- 대 상 : 초.중등학생
- 강좌일시 : 8. 4 ~ 29(4주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 시 간 : 오전 11시 ~ 12시 / 오후 1시 ~ 2시
- 수강료 : 30,000원